

독일의 저출산과 고령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각국의 대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독일 대사로 참석하게 된 임가현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현재 독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국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비해 출생률이 낮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저희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위와 같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보육시설 확충, 출산 장려금 제공 등을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덜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출산율 증가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본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본국의 고령화 현상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노동 시장 지원을 고령자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운영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그닥 크지 않았음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각국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